

참나무



1

지소 가토 다미키치 출생지



다미키치의 생가가 있던 자리에 1937년 도쿠가와 요시치카에 의해 세워진 비석. 비석 옆에는 자기 유약에 사용되는 참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.

2

가마가미신사

다미키치가 모셔져 있는 신사입니다. 신전은 자기를 굽는 노보리가마를 본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다미키치에게는 평소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배례하는 곳으로 1824년에 그의 가마 후방에 건설되었습니다. 1826년에는 2대째 다미키치가 초대 다미키치를 원형 마루가마가미(현재는 가마가미)라고 부르며 추가로 모셨습니다.



아쉬움의 삼나무

다미키치는 규슈에서 수행을 마치고 사자를 떠날 때 기념으로 삼나무를 심었습니다. 그 삼나무는 현재 수령 200년의 거목이 되었습니다. 이 "아쉬움의 삼나무"는 2004년에 사자 삼나무의 가치를 가져와서 삼목·육성하여 식수된 것입니다.



인수이시켄

다미키치가 규슈에서 수행할 때, 몸을 의탁했던 도코지가 있는 혼도시(현재: 아마쿠사시)에서 보내온 아마쿠사 도석으로 만들어진 비석. 다미키치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.



지소 가토 다미키치용 비석

1922년에 건립된 다미키치의 전기가 기록된 비석. 1,117자의 장문으로 시내의 비석 중에서는 가장 긴 것입니다.



쓰가네 다네오미 부자 송덕비

아스타 부교 쓰가네 다네오미와 그 아들 다네사다의 비석. 다네오미는 다미키치의 재능을 발견하고 다네사다는 다미키치를 규슈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

가토 도자에몬 다카카게용 송덕비

촌장으로 세토의 요업 발전에 공헌한 인물. 자기 제법의 발전을 목표로 다미키치의 규슈 수행을 지원했습니다.

3

세토소메쓰케 공예관

에도시대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소메쓰케 가마야의 소규모 공장을 복원한 건물입니다. "세토소메쓰케"를 테마로 녹로와 그림 그려 넣기 등의 작업 풍경 공개와 세토소메쓰케의 명품 전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시설 내에는 에도시대(1603~1868) 말기부터 세토에서 사용되어 왔던 "옛 가마"가 보존되어 있습니다. 이 옛 가마는 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1997년에는 세토시 지정 문화재로, 2007년에는 근대화 산업 유산군으로 인정되었습니다.



소메쓰케 체험

체험 메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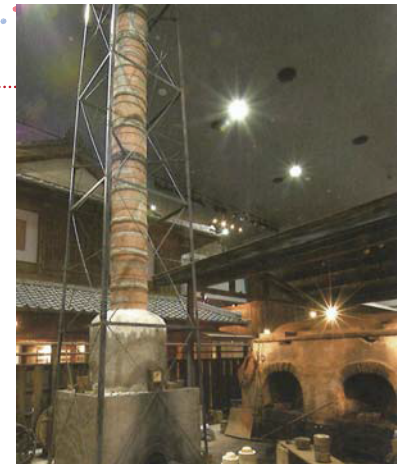
젓가락 받침 300엔, 브로치 300엔, 작은 접시 500엔 등
접 수 | 본관 1층에서 수시로 접수합니다. (오후 4시까지)
* 5명 이상 체험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(0561-89-6001)
* 작품은 가마에서 구운 후 추후 전달해 드립니다. (우편 요금 별도)

고쓰라는 안료로 그림을 그려 넣는 "소메쓰케"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.

4

세토구라 뮤지엄

세토구라 뮤지엄은 세토 도자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꼭 방문해야 할 시설입니다.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소메쓰케 자기의 작품도 다수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미키치 작품으로 전해지는 우수한 작품과 만국박람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메이지시대에 많이 수출된 호화찬란한 소메쓰케 자기 등도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.



세토구라 뮤지엄

개관 시간 | 오전 9시~오후 5시(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)
휴 관 일 | 월 1회정도 임시 휴관, 연말연시
입 장 료 | 일반 520엔, 고등학생·대학생·65세 이상 310엔
중학생 이하·장애인수첩을 소지하고 계신 분·임산부는 무료
* 20명 이상 단체 할인됨

중요 유형 민속문화재



청자 소메쓰케 류토몬 크 꽃병
전가토 다미키치
19세기 전기

세토시 지정 문화재



소메쓰케 화조도 사자 손잡이 뚜껑이 있는 큰 장식 항아리
가와모토 마스키치
초대 1876년